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한문영역 프랑스어 I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① 03. ② 04. ⑤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① 15. ① 16. ④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⑤ 22. ① 23. ② 24. ④ 25. ③ 26. ④ 27. ① 28. ② 29. ④ 30. ②

[1~5] 발음 및 어휘

1. [n] 발음 찾기

Nous sommes très copines! 우리는 매우 친한 친구야!

- ① brun [brœ̃] ② mince [mɛ̃:s] ③ oncle [ɔ̃:kl] ④ certain [sɛʁtɛ̃]
⑤ semaine [s(ə)mɛ̃n]

정답해설 : copine의 밑줄 친 'n'은 뒤에 모음 'e'가 와서 [n]으로 발음된다. semaine의 철자 'n'도 같은 조건에서 [n]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 철자가 옳은 것 찾기

- (a)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
(b) 나는 샐러드를 먼저 먹는다.
(c) 일 년은 열두 달이다.
(d) 우리는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e) 이 집은 큰 수영장이 있다.

정답해설 : (a) content : 만족한 (b) salade : 샐러드 (c) douze : 12

(d) professeur : 선생님 (e) piscine : 수영장

따라서 철자가 옳은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3. 어휘_명사/형용사

A : 내 요리 어땠어?

B :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어.

A : 말도 안 돼! 그걸 준비하는 데 하루 종일 걸렸는데.

- ① 확실한 ② 사실/참된 ③ 친절한 ④ 단순한 ⑤ 가능한

정답해설 : 문맥상 B의 빈칸에는 'à dire vrai', 'à vrai dire'의 형태로 '사실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의 의미를 만드는 명사 'vrai'가, 마지막 A의 빈칸에는 'Ce n'est pas vrai.'의 형태로 '그럴 리가 없다, 말도 안 돼'의 의미를 만드는 형용사 'vrai'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4. 어휘_동사

○ 우리는 추위 때문에 힘든 겨울을 (a)보내고 있다.
○ 그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b)번다.

- | | | | |
|--------|-----|---------|--------|
| (a) | (b) | (a) | (b) |
| ① 놓다 | 살다 | ② 이다/있다 | 형성하다 |
| ③ 남아있다 | 돌보다 | ④ 남겨두다 | 관심을 두다 |
| ⑤ 보내다 | 벌다 | | |

정답해설 : 문장 의미상 밑줄 친 빈칸 (a)에는 직접목적어인 ‘un hiver difficile’과 결합하여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동사를 찾아야 한다. 답지에 제시된 동사들 중에서 ‘traverser’는 어떤 시기나, 시대, 상태 따위를 의미하는 직접 목적어와 결합하여 ‘살다, 보내다, 경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밑줄 친 빈칸 (b)에는 문장 의미상 직접목적어인 ‘sa vie’와 결합하여 ‘생활비를 벌다’의 의미를 만드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프랑스어에서 ‘gagner sa vie’는 ‘생활비를 벌다, 밥벌이를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답은 ‘traverser’와 ‘gagner’로 구성된 ⑤번이다.

정답 ⑤

5. 어휘_명사

A : 벌써 밤이 되었어. 시간 잘 간다.
B : 그래. 게다가 비가 다시 와. 날씨도 빨리 변해.

- ① 시간 ② 일기예보 ③ 연속 ④ 기온 ⑤ 시간/날씨

정답해설 : A가 벌써 밤이 되었다고 하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 잘 간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A의 빈칸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해 B가 비가 다시 온다고 답하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가 빨리 변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날씨’를 의미하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에 있는 명사들 중에서 ‘temps’은 ‘시간’과 ‘날씨’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명사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사는 ⑤ temps이다.

정답 ⑤

[6~10]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식당에서)
A : 안녕하세요. 제가 두 명 자리를 예약했는데요.
B :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A : Lemarchais, Sophie Lemarchais입니다.
B : 저를 따라오세요.

정답해설 : 예약한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에 비추어 빈칸 B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A가 이름을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예약자의 성명을 확인하는 질문인 ③번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정답 ③

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B : 지금으로서는 아무 것도 없는데.
A : 우리 영화관에 갈래?
B : 아니, 나가고 싶지 않아.

- ① 너 배고프니 ② 너 일어났니 ③ 너 내일 어디 가니
④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⑤ 너 친구들 만나니

정답해설 : 첫 번째 A의 빈칸 질문에 대해 B가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A가 영화관에 갈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의 빈칸에는 B의 오늘 스케줄을 묻는 ④번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④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안녕하세요, 선생님. 방 두 칸짜리 아파트 있나요?
B : 네, 기차역에서 가깝고 시내에 있어요.
A : 몇 층이에요?
B : 4층이고 승강기가 있어요. 거실은 공원을 향해 있고, 방은 크고 밝습니다. 욕실과 화장실이 있고요.

정답해설 : 대화에서 집은 기차역에서 가깝다고 했으므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함께 식당에 가자. 내가 살게.
B : 아니야! 이번에는 내가 낼게.
A : 정말?

- ① 내가 살게 ② 유감이야 ③ 나는 약속이 있어 ④ 아무것도 아니야
⑤ 아프다

정답해설 : B가 A에게 이번에는 자신이 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에는 A 자신이 내겠다고는 표현인 ①번이 적합하다.

정답 ①

13.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안녕하세요,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B : 떨어졌어요. 대신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있어요.
A :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 ① 기꺼이 ② 별로 ③ 떨어졌어요(더 이상 없어요)
④ 그건 적지 않아요(많아요) ⑤ 별 것 아니에요

정답해설 : A는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기 원하는데 B가 그것 대신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남아 있다고 대답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③번이다.

정답 ③

14. 광고문 이해하기

세차.FR
여러분 세차가 필요하세요?
√현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집에서
√예약하고 또는 예약 없이
4유로부터
☎ 01 34 XX XX XX
9시부터 18시까지 열고
월요일에는 닫음

정답해설 : 광고문에 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므로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15.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우리 이제 저 성에 가볼까?
B : 좋아. 그런데 그 전에 커피 한 잔 하는 거 어때?
A : 좋은 생각이야! 가자.

- ① 커피 한 잔 할래 ② 그것은 아무 소용 없니 ③ 언제로 예정되어 있지
④ 우리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니 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니

정답해설 : B의 빈칸에 대한 대답으로 A가 동의하며 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①번이 적합하다.

정답 ①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자, 오늘 일이 끝났습니다.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B : 당신도요.

- ① 만나요 ② 이만 총총(편지의 경구) ③ 당신 생각에 ④ 당신도요
 ⑤ 조만간 봅시다

정답해설 : 밑줄 친 부분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7. 엽서 내용 이해하기

8월 7일, Nice	
사랑하는 Louise에게	
난 4일 전부터 이곳에 있어. 나의 휴가는 정말 멋져.	
나는 친구들을 만났고 우리는 Promenade des Anglais를	87000 Limoges, Bac 가(街)
따라서 걸었어. 이곳에 너와 함께 다시 오고 싶어.	25번지 _____
안녕.	Louise Leroi _____
Valérie가	

정답해설 : 엽서의 내용으로 보아, Louise는 Limoges에 살고 있고, Valérie는 8월 7일인 현재 시점에서 4일 전부터 Nice에 있으며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산책을 했다. 그리고 Louise와 함께 Nice를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엽서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②번이다.

정답 ②

1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안녕하세요, Necker 병원입니다.
B : 안녕하세요. 저는 Dubois라고 하는데 Burac씨와 통화하고 싶습니다.
A : ①, ②, ③, ⑤. 그를 바꿔 드릴게요.
B : 감사합니다.

- ①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② 잠시만 기다리세요
 ③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④ 줄을 바꾸세요
 ⑤ 잠깐만요

정답해설 : 전화 대화 상황으로 빈칸에는 Burac씨를 바꿔 주기 전에 기다려 달라는 표현들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따라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④번이다.

정답 ④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봐봐! 나는 파티에서 이것을 입을 거야.
B : 예쁘다!
A : <u>그렇게 생각해?</u>
B : 응, 너에게 아주 잘 어울려.

- ① 너 할 수 있니 ② 그렇게 생각해 ③ 너는 뭘 원해
 ④ 너는 그것을 언제 샀니 ⑤ 너는 누구를 기억하니

정답해설 : 대화문에서 첫 번째 B가 A의 파티 의상을 예쁘다고 칭찬하자 이것을 듣고 A가 빈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해 B가 다시 한번 칭찬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빈칸 A에는 B의 생각을 확인하는 질문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자, 나 먼저 갈게.
 B : 아 그래? ①, ②, ④, ⑤?
 A :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야 해.

- ① 이렇게 빨리 ② 뭐 하러 ③ 언제
 ④ 이 시간에 ⑤ 무슨 일 있니

정답해설 : 빈칸은 대화문은 A가 먼저 간다고 하자 B가 놀라면서 질문하는 상황이다. B의 빈칸 질문에 대해 끝나쳐야 할 숙제가 있다는 A의 대답으로 보아 빈칸에는 ③번을 제외한 모든 답지의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 실례합니다, 선생님.
 c. Hugo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B : 네, 그 거리 잘 알아요. b. 저쪽에 신호등 보이시죠?
 신호등에서 우측으로 가세요. 우체국까지 계속 가세요.
 Hugo 거리는 당신의 좌측에 있어요.
 A : a. 여기서 멀어요?
 B : 아니요. 걸어서 단 10분이에요.

<보 기>

a. 여기서 멀어요
 b. 저쪽에 신호등 보이세요
 c. Hugo 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답해설 :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의 순서가 c-b-a가 되어야 하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5. 인물 문화: Sidonie-Gabrielle Colette(시도니-가브리엘 폴레트)

시도니-가브리엘 폴레트는 프랑스의 문인이자, 배우이며 기자이다. 1873년 Saint-Sauveur-en-Puisaye에서 태어나서 1954년 파리에서 사망했다. 그녀는 *La Naissance du jour*, *La Maison de Claudine*, *Sido...* 등을 집필했다. 그녀는 작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녀는 1945년에 아카데미 공쿠르 회원이 되었고 1949년에 회장이 되었다. 폴레트 박물관과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들이 있다.

정답해설 : 제시문은 프랑스의 유명한 여류 작가 중 한 명인 폴레트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문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답지는 ③번이다. 정답 ③

26. 생활 문화의 이해: Le Beaujolais nouveau(보졸레 누보 포도주)

미나 : 보졸레 누보가 뭐지?
Léa : Lyon 가까이 위치한 보졸레 지방의 포도주야. 그것은 생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셔. 매년 같은 날에 출시돼.
미나 : 그게 언제야?
Léa : 11월의 세 번째 목요일이야. 프랑스와 세계 곳곳에서 팔아.
미나 : 그 포도주 맛은 어때?
Léa : 맛이 연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

<보기>

- a. 특히 젊은이들이 이 포도주를 좋아한다.
- b. 외국에서도 이 포도주를 판매한다.
- c. 이 포도주는 매년 11월 3일에 출시된다.
- d. 맛이 연해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좋아한다.

정답해설 : 대화문은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졸레 누보 포도주에 관한 것으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b, d로 구성된 ④번이다. 정답 ④

[27~30] 문법

27. 품질 형용사 'beau'의 용법

A : Marie가 자신의 학업을 마쳤어.
B :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녀는 밝은 미래를 가지게 될 거야.

정답해설 : B의 빈칸에는 명사 'avenir'(장래, 미래)와 결합하여 '밝은/좋은 미래'를 의미하는 품질형용사 'beau'의 알맞은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품질형용사 'beau'는 주로 명사 앞에서 '좋은, 아름다운, 상당한...' 등의 다양한 의미

를 갖는 형용사이다. 수식하는 명사의 성수에 일치시켜야 하는 품질형용사의 특성상 형용사 'beau'는 'beau, belle, beaux, belles'의 네 가지 기본 형태를 갖는데,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모음이나 무음 h로 시작하는 남성명사가 나올 경우에는 흔히 남성 제2형이라고 불리는 'bel' 형태를 추가로 갖고 있다. 제시문에서 'beau'가 꾸며주는 명사 'avenir'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남성 명사이므로 B의 빈칸에는 'beau'의 남성 제2형인 'bel'이 사용되어야 한다(un bel avenir). 정답 ①

28. 전치사

A : 이 수업은 이해(a)하기가 힘들어.
 B : 걱정하지 마. 너를 도와(b)줄 책들이 나에게 있어.

정답해설 : 해당 문항은 동사원형을 도입하는 전치사의 용법을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인칭 주어 'il'이 사용된 구문에서 동사원형이 진주어 역할을 할 경우에는 'Il est + 형용사 + de 동사원형'(~하기에는 ...하다) 구문이 사용된다(ex. Il est difficile de comprendre ce cours). 하지만 A가 말하는 문장에서와 같이 동사원형 'comprendre'의 직접목적어 'cours'가 주어로 사용될 경우에는 '명사주어+ être + 형용사 + à 동사원형' 형태로 전치사 'de' 대신 'à'가 사용되어야 한다(ex. Ce cours est difficile à comprendre.). 따라서 A의 빈칸 (a)에는 전치사 'à'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맥상 '너를 도와줄 책들'에 해당하는 B의 빈칸 (b)에는 의미상 '목적'(~을/를 위한)을 표현하는 전치사 'pour'가 들어가야 한다(ex. Il n'y a pas de place pour stationner.). 따라서 빈칸 (a), (b)에 각각 'à'와 'pour'로 구성된 ②번이 정답이다. 혹시라도 'quelque chose à 동사원형' 형태로 B의 빈칸에 전치사 'à'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quelque chose'가 이어지는 동사원형의 직접목적어여야 가능할 뿐, 본 문항에서와 같이 'aider' 동사의 직접목적어가 직접목적보어대명사인 'te'로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②

29. 수량부사

A : 그가 벌써 왔어? 약속은 17시잖아.
 B : 그래, 너무 일찍 도착했어.

<보기>
 a. 너무 b. 많이 c. 아주 너무

정답해설 : B의 빈칸에는 의미상 부사 'tôt'(일찍)의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부사로는 'très', 'trop', 'un peu' 등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 중에서 b. 'beaucoup'는 동사를 수식하거나(ex. Il a

beaucoup changé.), 비교급을 강조하는 데 사용될 뿐(ex. C'est beaucoup plus rapide.)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는 없다. 다만 부사 수식과 관련해서는 c. 'beaucoup trop'의 형태와 같이 'trop'의 의미를 강조하는 용법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B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a. 'trop', c. 'beaucoup trop'로 구성된 답지 ⑤번이 정답이다. 정답 ⑤

30. 시제 일치

Alain : 나는 내일 케이크를 하나 만들 거야.
Émilie : 뭐라고?
Manon : 그가 케이크를 하나 만들 거라고 말했어.

정답해설 : 해당 문항은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접속사 'que'로 도입되는 종속절에서의 동사 시제 일치 문제를 묻고 있다. 대화문에서 Alain은 'aller + 동사원형' 형태로 근접 미래를 표현하고 있다. 이 문장을 Manon이 Émilie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종의 간접화법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문항에서와 같이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주절의 '현재시제'가 '과거시제(복합과거나 반과거)'로 바뀌면 종속절의 '현재시제'는 '반과거' 형태로 바뀌는 것이 시제 일치의 원칙이다. 이를 Manon의 말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Il dit : "Je vais faire un gâteau demain."

-> Il a dit qu'il allait faire un gâteau demain.

따라서 Manon의 빈칸에는 'aller'의 반과거 형태인 'allait'에 동사원형 'faire'가 결합된 형태인 'allait faire'가 정답이다. 정답 ②